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순종 제목:명령하시는 하나님 성경:신명기 29장
18-21절

18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썩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20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 되

21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신29:18-21)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정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을 때 사명감이 솟구치게 된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는 존재이다. 왜냐면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위해서 산다. 그 말씀을

먹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사는데, 심지어는 죽기까지 충성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여한이 없게 된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10 달란트 비유)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여전히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당하다고 실제로 믿는다.

-오늘 신명기 29장에는 그들이 강박한 자들로 등장한다. 이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항상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다.

19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들은 젖어도 불순종, 말라도 불순종한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은 말랐기 때문에 멸망하리라고 한다. 어떤 것은 젖었기 때문에 멸망하리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겸손한 일을 한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대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람은 명령을 받고 순종하도록 지음 받았다. 명령에 순종할 때가 가장 기쁘다.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깨닫기 위한 눈과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의 눈과 귀는 한계가 있다. 모두 보거나 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으로 판단하며 깨닫는 것은 무리다.
-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신다. 즉 삶에 대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마귀가 해석하는 것은 악하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악하다. 오직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 심지어는 광야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전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다.

-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자들은 기뻐해야 한다.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복으로 크게 만족해야 한다. 그만하기 다행이다. 만나를 주시다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만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6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
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환경이 사막과 같이 척박하다고 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것들에 개의치 않는다. 오직 사명을 감당함을 기뻐한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한다.

9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살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십계명은 예외가 없다. 모두 지켜야 한다.

18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썩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은 독초와 쭉의 뿌리가 생기는 것을 염려 하셨다. 광야 생활 중에도 열 번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다. (원망, 불평, 반역, 짜증, 거역, 음란, 시기 등)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한 사건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나를 열 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 14:22~23/민 14:25~38)						
No	원 망 사 건	원 인	성 경	결 과	성 경	비 고
1	출애굽 후 홍해 앞에서의 원망	바로의 군대 추격으로 홍해 앞에서 두려움으로 출애굽 시킨 것 원망	출 14:10~12	홍해의 기적	출 14:15~31	
2	마라에서 물에 대한 원망	쓴 수르광야를 사흘간 갈증이 마라의 쓴물로 인한 원망	출 15:22~24	나뭇가지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	출 15:25~26	치료의 여호와와
3	신 광야에서 굶주림에 대한 원망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 먹을 때를 회상하며 굶주려 죽일까 원망	출 16:2~3	만나와 메추라기	출 16:13~36	율법준행의 시험
4	맛사 또는 브리바의 물 사건	르비딤에서 갈증으로 인한 원망	출 17:1~3	호렘산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남 모세와 아론의 가나인 불 입성	시 106:32~33 3출 17:6~7	민 20:12 여호와와 다름
5	다베라 사건	여호와와 들으심에 악한 말로 원망	민 11:1	여호와와 불로 진을 불사름 모세의 기도로 불 꺼짐	민 11:2~3	
6	기브트 핫다아와 사건	만나에 대한 불평 - 쉬어 사는 무리(잡족)의 미혹으로 울음 - 모세의 부담	민 11:4~6	모세의 책임분담-칠십인 장로세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후 치심	민 11:10~35	탐욕의 무덤
7	가나안 땅 탐지 보고 때의 사건	가나안 탐지 후 악평 할 때 온 회중이 통곡과 원망	민 13:25~14:4	이십 세 이상 가나안 땅 못 들어감 - 40년간 광야 /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	민 14:26~38	60만 사망
8	불 뱀 사건	홍해 길을 좇아 에돔 땅을 둘러 광야로 행하려 함에 맘이 상함	민 21:4~5	불 뱀을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많은 자의 사망	민 21:6~9	눅뱀을 쳐다봄으로 구원
9	고라의 당 짓는 사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으로 제사장 직분을 탐냄으로 아론을 원망	민 16:1~11	땅이 갈라져 고라에 속한 것 삼킴 분향하는 이백 오십인 불이 소멸	민 16:28~35	거룩한 자 - 택한 자
10	고라사건 결과로 원망한 사건	고라일당의 죽음으로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칠 때	민 16:41~42	백성들 중 열병시작/죽죄 후 생자와 死者 사이 있을 때 열병 그침	민 16:44~50	일만사천 칠백명 死

-여기에 더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배울 것인데, 그것은 독초와 쑥의 뿌리, 즉 저주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셨다. 이런 우상숭배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날 때 생겨난다.

-가나안이 좋은 해도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다. 광야에서는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포도주와 떡과 무화과, 각종 고기들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잡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하고 저주를 부르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저주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어 계명을 지키게 하고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다.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 온갖 종류의 죄악이 그곳에 기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에서는 원망하지 말고, 가나안 생활에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미혹하려 한다. 그는 한정된 눈으로, 한정된 귀로 얻은 온전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영적 리더와 상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으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질투한다. 마르면 마르다고 불평, 젖으면 젖었다고 불평한다.

-순서는 이렇다. 일단 마귀의 말을 듣는다. 마귀의 말을 믿는다.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원망, 미움, 불평,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자기의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가 목자가 되고 삶은 곤고해 진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

20 여호와와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
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

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복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항상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

-심지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 된다.

-왜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순종 제목: 순종의 기쁨 말씀: